

## 공동관심사 나눔

### 1. 오늘 일정 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의 친교를 나누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 임시사무실 계약완료 : 내수동 회명빌딩 2층, 계약 기간 : 6월 1일~2022년 11월 31일(18개월)
- 교회이사팀 회의 : 오후 1시, 온라인(ZOOM)
- 새날청년회 배움마당 :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선교팀 : “수세미 심기”, 오후 2시, 고양시 오금동 ‘장구’에서 진행
- “굿문” 축제 : 신앙 수필, 추억이 담긴 사진과 물품 공모 추가모집 : 4월 30일 (금)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cloudcam@kaka.com), 교인 단독방, 우편
- 미래선교위원회 음악선교팀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 5월 30일(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
- 봄철 심방 : 봄철 심방 신청을 받습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들녘농산물 판매 : 백미, 현미, 7분도미, 참기름, 들기름, 들깻가루(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날이 더 따뜻해지기 전에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교우 소식

- 제대 : 김효명 교우(새청), 4월 2일(금)
- 소천 : 권지숙 집사의 부친이신 故 권오석 집사님께서 지난 4월 13일(화)에, 홍성조 집사(권명옥 집사의 시모)의 모친이신 故 정구복 님께서 4월 14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3. 이번 주 일정 안내 : 4월 19(월)~4월 25일(일)

- 임시 당회 : 4월 24일(토), 오후 5시, 온라인(ZOOM)
- 목회운영위원회 : 4월 25일(일), 오후 2시, 온라인(ZOOM)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 4월 28일(수), 오후 8시, 온라인(ZOOM)
- 향린 강좌, 「성서와 신학」 :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시 (유튜브 검색, “성서와 신학”)
- 새청 인문공화국 : 『호모 사케르』(조르주 아감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문의 : 유 건 010-5154-9202)
- 선교부 민중신학 공부모임 : 『갑과 그림자의 과정신학-입문적 해설』,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이번 주 성서일과 : 사도행전 4:5~12, 요한1서 3:16~24, 요한복음서 10:11~18

### 4. 이후 일정 안내

- 건축위원회 설명회 : 4월 27일(화), 오후 7시, 3층 예배실, 온오프라인 병행, 대상 : 건축위원(누구나 참관 가능)
- 교육위원회 : 5월 2일(일), 오후 3시, 온라인(ZOOM)
- 수요영성기도회 : 5월 5일(수), 오후 8시, 온라인(ZOOM)
- 교육부교역자 워크숍 : 5월 8일(토), 오전 10시, 어린이부실

### 5. 에큐메니칼 소식

- 서울노회 정기노회 : 4월 20일(화), 오후 2시, 공덕교회

### 6. 감사헌금

배미원(감사), 염윤희(감사), 임보라(강단교류주일 감사), 홍영진(생일 감사), 황영준/주지형(감사)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3. 우리는 우리의 삶과 습관이 녹아 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 목 / 회 / 마 / 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평등에 우선 없고, 예외 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동정과 시혜한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에 맞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었다. 시설에 가두고 권리를 박탈당한 역사를 비판하며 동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한 싸움이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만연한 차별을 고발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속에 수용시설의 격리를 통해 지워져버린 존재들이 스스로 사회 속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전체 장애인의 10%가 여전히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 장애인의 22%(중증장애인)만 이 고용되는 사회,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도 집단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과 맞서 싸우고, 법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듯 다양한 차별은 강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있다. 그 연결된 차별의 고리를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며 평등을 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한 목표다. 장애인 간의 무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이란 단일한 정체성으로만 불렀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 사람을 선언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이들 우리 모두는 달랐고 또 다르다. 장애노동자, 장애성소수자, 장애여성, 장애인민, 장애청소년 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의 경험은 자서히 드러나지 않았다. 장애인이기 때문만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과 학력, 가족형태 성별정체성등이 다양하게 구성된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보고 그에 따른 경험을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안에 다양한 차이와 드러나지 않았던 복합차별의 문제를 가시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다른 존재 모두가 서로가 마주함을 선언하는 자리,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모든 차별과 복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이유다.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극복하라는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같이 싸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동료 시민 그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 땅의 서로가 다르고 같게 마주 앉은 모두와 함께, 세상을 억울하게 떠난 자들의 부고가 전해질 때 나의 친구의 안부를 더 이상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평화를 지키고 평등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2021.4.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